

2021 제3차 임시이사회

# 회 의 록

# 「충남연구원」 2021 제3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 ① 회 의 개 요

1. 일 시 : 2021. 9. 3(금), 10:30 ~ 13:00
2. 장 소 : 충남연구원 4층 대회의실
3. 참 석 : 총 10명(이사 9, 감사 1)
  - 불 참(9명) : 이사장, 원장(제척), 김영만 이사, 송준호 이사, 이수훈 이사, 지진호 이사(제척), 홍성주 이사, 정연기 이사, 하승수 감사

## 4. 부의안건

### □ 의결안건

- 제1항 충남연구원장 선임(안)
- 제2항 2021 제1차 추경예산(안)

### □ 보고안건

- 제3항 부설센터 직원 불법행위 적발 경과 보고

## 5. 진행흐름



## 2 회 의 결 과

### □ 간사 안내

- 이사장이신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에 연구원 정관 제16조 제2항에 따라 “김수민” 이사께서 이사장을 대신해서 이사회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 “김수민” 이사님께서서는 이사장 좌석에 앉으시어 이사회를 주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수민 이사 이사장 석으로 이동]

### □ 개 회(간사)

[국민의례, 성원보고]

### □ 개회선언(이사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2021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 이사장 인사

- 오늘 임시이사회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이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이사님들께서 여러 가지 현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진심어린 발언을 해주시고 기탄없이 의견을 내주셔서 이사

회가 효과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부의안건 심의의결

### <의 장>

- 부의안건 심의에 앞서, 회의록 기명이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이사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실 두 분 이사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배 이사>

- 김황배 이사님을 추천합니다.

### <의 장>

- 김황배 이사님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한분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찬 이사>

- 이정일 이사님을 추천합니다.

### <이정일 이사>

- 지난번에 제가 했습니다.

### <의 장>

- 이정일 이사님이 추천되셨는데, 또 자발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 안계십니까?

### <정세은 이사>

- 저도 했었는데요. 사인만 하면 되던데요.

### <의 장>

- 그러면 정세은 이사님이 의사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 김황배 이사님과 정세은 이사님께서 기명이사로서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 <이사전원>

- 없습니다.

### <의 장>

- 예, 그러면 두 분께서 회의록 정리에 수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간사는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 사>

- 오늘 심의의결 하실 안건은
    - 의결안건으로
      - 제1항 충남연구원장 선임(안)
      - 제2항 2021 제1회 추경예산(안)
    - 보고안건으로
      - 제3항 부설센터 직원 불법행위 적발 경과 보고
- 오늘 부의된 안건은 총 3건입니다.

## 〈의 장〉

- 먼저 의결안건 2건 중에 의사일정 제1항 충남연구원장 선임(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간사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제안설명 - 부의안건 참조]

## 〈의 장〉

-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이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이사님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분이 선임되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우선은 이 분이 어떠한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선임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사님들이 이 분을 선정함에 있어서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 혹시 누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간 사>

-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연구원의 임원추천과 관련해서는 연구원의 정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사 조직 지침을 따르도록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 조직 지침에는 제3항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련해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는 도의회에서 세 분

그리고 도지사가 두 분, 이사회에서 두 분의 임원추천위원회 총 일곱 분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원장의 선임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의결하고 원장 추천을 위한 모든 일정을 진행해왔습니다.

- 서류심사를 통과하였고 최종면접을 통과한 2인을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라서 임명권자인 도지사에게 통보를 하고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도지사가 아직 임명과정을 거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사회를 의결을 통해서 이사장이 임명한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도지사가 최종적인 임명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서 한 분을 지명하여 이사회에 의결을 요청한 것입니다.

#### <의 장>

-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일 이사>

- 임추위 면접결과 2배수인 두 분 중에 한 분은 누구인지 이 자리에서 알 수가 있나요? 그런 과정에서 두 분이 지사님한테 올라간 결과 한 분을 이사회에 의결을 요청하신 거죠?

#### <간 사>

- 네, 그렇습니다.

### <이정일 이사>

- 그 과정들이 언제쯤 진행됐나요?

### <간 사>

- 지난 주 목요일에 심사결과가 나와서 서류에 응모하신 분은 총 여섯 분이셨고 그 중에 서류심사를 통과하신 분은 네 분이셨습니다. 그 네 분에 대해서 지난 주 금요일에 공지를 했고 이번 화요일에 면접심사가 이루어졌고 네 분 중에 두 분을 임명권자인 도지사에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께서 그 중에 한 분을 지명하셨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앞으로는 의회에 청문회 일정도 다음 주에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이정일 이사>

- 한 분을 지사님이 지목하셔서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의결을 요구하신 거죠? 저희는 논의할 비교치가 없어서 대략 난감하셨겠지만. 저는 잘 몰라서, 일단 과정들을 다시 짚어봤습니다.

### <의 장>

-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사과정을 거쳐서 추천된 두 분 중에서 한 분을 도지사가 지명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건가요?

### <간 사>

- 규정에는 ‘지명하도록’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



천한 두 분 중에 최종 임명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은 도지사가 맞습니다.

<의 장>

- 규정이 두 분만 추천하도록 되어있나요?

<간 사>

- 아닙니다. 2배수 이상이라고 되어있습시다만 총 2배수 이상의 몇 분을 추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임원추천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맞습니다.

<의 장>

- 이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사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알게 되어  
서, 많은 이사회를 해오면서 느끼는 것이 이 이사회가 통과 장치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어떤 이의를 제기하  
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가려면 합리적 규  
정과 공정한 절차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먼저 명확하게 서로 이해가  
되고 논의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운영하  
는 사람이 그 본래의 규정과 절차가 의도하는 바대로 제대로 운영하는,  
결국 사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이사님들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 지난 번 이사회에서도 이사회 추천을 두 분을 하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세은 교수님이 뭔가 문제를 제기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이사회추천의 몫의  
위원은 이사회가 선출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이사회 소속된 분이거나 혹  
은 이사회 밖의 분이거나 간에 이사회 고유의 권한으로 추천할 수 있도  
록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하는 생각이 첫째로 들었고, 결국 아까 공기업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가 지명하도록 되어있다는 과정, 사실 그것도 여기  
와서 알게 된 것인데 이런 점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분이 대상이  
되었는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지금 이사님들께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  
니다.
- 이사회에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규정들은 마련되고 있습니까? 다음의 이  
사회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이사  
회에서 결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간 사>

-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이, 두 가지 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 하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따르다 보니 임원  
추천위원회의 자격 요건이 경영인, 경제인 중심으로만 되어있어서 이것  
이 연구원장을 추천해야 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의 기준으로서 뭔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주셨고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에서 두 분을 추천한다고 했지만 명쾌  
하게 이것을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한다는 게 명쾌하지 않은 부분  
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을 안을 만들어서 도와 협의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일 이사>

- 나중에 회의록에 명기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 일단 2배수를 추천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 최종 임명권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두 분에 대한 또 하나는 저희 이사회 현 이사장님의 의견 형식으로 이사회의 최종 후보자에 대한 것을 주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부분을 세세하게 따지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게 명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일반 관행적인 측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 임명권자가 도지사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내부의 어떤 관행들의 수순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회의록에는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따지거나 이러기에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의 장>

- 네.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 <류주현 이사>

- 한 말씀 드리자면 먼저 나왔었을 때 보완한 것 중에 하나가 추천할 때 서면으로 하면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 그것 다시 한 번 보완하실 때 보충해주시고요.
- 이번 건에서 회의에 최종 추천된 두 명의 내용이, 지명했다는 것은 밝혀주더라도 두 명의 자료가 올라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 두 분의 직무계획서 요약본도 같이, 떨어지신 분도 아직 떨어졌다는 아니지만 같이

올라와져 있으면 비교가 되잖아요. 저희 이사회에서. 그러면 아마 도지사님도 두 분 중에 누가 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둘 다 괜찮으신 분을 추천했겠지만 저희가 두 분의 직무계획서를 보면서 이 분을 지명 하셨구나. 이런 게 조금 더 조심스러우시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한 명만 올라와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적어도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신 두 명 이상의 대상자의 프로파일은 같이 올라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세스를, 규정을 수정할 때 그것도 추가로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 <이정일 이사>

-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회의록에도 명시가 잘 못 되는, 지명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을 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말씀대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공개화 되어있고 명칭은 무엇이 되었던 간에 지사님의 추천제를 지사님이 사전에 판단하신 분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이사회에서는 두 분이 누군지 지금 말씀하신 최소한의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아니면 참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는 공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되려 이상할 것 같기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서요.

#### <의 장>

- 알겠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지난 번 서면결의를 하는 건데 저도 무심코 서명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문제제기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굉장히 제 나름대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관행이라고 하는 것 뒤에

숨어서 너무 쉽게 어떤 상황을 용인해왔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민주화 과정을 거처가면서 더 투명해지고 규정이나 이런 것도 더 합리적이게 되고 이렇게 되어가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의식이고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참 많이 했습니다.

- 어떤 특정인이 원장이 되고 아니고의 차원을 떠나서 이 이사회가 정말 실질적인 이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많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 그런 점에서 오늘 원장 선임(안)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사님들의 의견, 기탄없이 말씀해주시면 차후에 나중에라도 이런 것들이 쌓여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정세은 이사>

-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들을 반복했고 잘 올려 주셔서 이제 새로운 원장님이 오시면 바쁘실테고 이걸 생각을 못하실텐데 저희가 다음 이사회에 올 때 문제를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 장>

- 그거에 앞서서 오늘 노동자 이사님이 참석하기로 지난번에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간 사>

- 노동자이사 선임에 대해서 도에 이미 요청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원장 선임(안)보다 먼저 요청 드렸는데 승인이 다음 주 월요일 날짜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번 이사회부터 노동자이사님이 참석하실 것 같습니다.

<의 장>

- 선임 되는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요.
- 이사회 자체가 최종 의사결정기구인데 충남연구원장님이 이사회 결의를 무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우리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세은 이사>

- 노동자이사님이 안 오신 게 원장 때문은 아닌 거죠? 도 때문인 거죠?

<간 사>

- 네. 그렇습니다.

<의 장>

- 결국 원에서 추진을 안한 것 아닌가요?

<조상현 팀장>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서 저희들한테 노동자 이사 승인요청 된 날짜가 8월 25일이었습니다. 8월 25일인데 서류가 미비 돼서, 의결서 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져있어서 저희가 보완을 요구해서 다시 받았고 그렇게 해서 결격사유 조회가 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임기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예정입니다.

<의 장>

-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조상현 팀장>

- 연구원에서 승인 요청을 해야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승인 요청을 하지 않으면 그 전에 행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의 장>

- 연구원이 노동자이사를 선임한 게 언제입니까?

<간 사>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원 회의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8월 25일에 요청 드린 것이 맞습니다.

<의 장>

-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제가 보면서 이사회가 그냥 모든 안건을 통과시키는 이런 형식적인 이사회로 전락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많이 하

게 돼서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특정하게 누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충남연구원의 이사회가 이사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바뀔 필요가 있다.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은 원장님의 선출안에 대해서도 지사님이 참석하셔서 왜 내가 이분을 선택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 점에서 이사님들이 너무 관행이다, 좋은 게 좋은거다 하는 식으로 가버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노동자이사 문제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이번에 참석을 못하셨다고 양해를 하고 다음에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서 새로운 이사회 구성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그러면 오늘 원장 선임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조금 더 의견을 내주시고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 싶으면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황배 이사>

- 단일 후보로 우리가 유동훈 후보자를 의결하게 되면 확정이 될 텐데 통상적으로 이사회에 와가지고 최종 후보자가 되면 소견 같은 것은 최소한 연구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발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결하는 게 상당히 유감스럽고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어떤 분인지 모르고 이사회에서 그냥 최종 한 분의 후보를 의결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의 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정세은 이사>

- 현재 규정자체가 임원추천위원회도 하고 거기서 올려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논의한다고 하고자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이 자리는 올라온 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넘어가고 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원장 선임과 관련한 이사회역 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면 다음에 안을 만들어올 때 그 때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논의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는 포커스가 일단 여기에 맞춰져서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의 장>

- 물론 그렇게 되어야겠지만 그러나 최소한으로 우리가 문제제기라든가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나 계기가 있을 경우에 그것들이 또 모아져서 나중에 좋은 의견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 <박정배 이사>

- 그러면 새로운 원장님이 오시면 이사님들과고는 언제 서로 상견례를 갖게 되나요?

<간 사>

- 아직 정해진 일정은 없습니다만 9월 17일, 모든 의회 청문회가 끝나고 9월 17일 처음 취임하시는 날짜가 되겠습니다.
- 차후에 말씀드리고 이사회 등 개최를 통해서 원장님과 만나실 수 있도록 자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배 이사>

- 그러면 그 때 종합적인 내용을 들어볼 수는 있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이분이 지금 지목이 되어서 원장으로 오시는 것은 확정된 겁니까?

<간 사>

- 최종 임명절차는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지사님이 임명하시게 됩니다.

<박정배 이사>

- 그럼 여기 이사님들이 원장님의 어떤 직무계획이라든지 향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임시이사회를 향후에 개최해서 그런 설명을 듣는 시간은 어디서 준비하는 겁니까? 새로 오신 원장님이 날짜를 잡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사회에서 요구하는 겁니까?

<간 사>

- 이사회에 임시이사회 개최요구에 대한 요건은 있습니다. 필요한 사안을 의결 하시면 임시이사회 개최 의결이 가능하십니다.

### <박정배 이사>

-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종찬 이사>

- 이사회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는 이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의결안을 보면 어떤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임원추천위원회 그리고 거기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서 2인을 도지사께 추천하고 도지사가 지명한 후보자를 11대 연구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을 의결하고자 함. 거의 연구원들 대동소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회 역할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사회 역할은 충남연구원의 어떤 운영방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는 결정의 기구인데 지명 되신 유동훈 후보자가 어떠한 분인지 이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관례대로 대부분의 연구원이 이렇게 진행 하겠지만 오늘 이슈제기가 된 것처럼 이사회의 역할이 통과하는 이러한 절차인가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 그런 의미에서 마냥 시간을 계속 끌 수는 없고 일단 의결을 요청해서 우리가 관행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못하고 다시 한다든가하는 결정을 하고 빨리 진행을 해야 다음 안건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어쨌든 공공기관이지만 민간기업에서도 요즘 사외이사의 역할이 강화가 되면서 기업의 어떤 윤리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조하게 되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우리 충남연구원과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이사회가 통과기구인가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금 더 전체적으로 충남연구원 자체 내에서도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 <의 장>

- 우리 정세은 이사님은 지금 결의를 하고 나중에 논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으셨고 박종찬 이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이정일 이사>

- 일단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과정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최종 의결되는 이사회에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런 내용들을 의결 하더라도 조금 더 이사들이 새로운 원장, 이후의 의회 청문과정도 거쳐야 하고 의회에서 또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도 이사회에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 보완 될 수 있으면 보완되어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현재는 빠르게 저희들이 이 과정들은 의결할 수밖에 없겠다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의 장>

- 더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만일 없으시면 이 안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회의록에 기록이라도 남기고 싶다는 게 있으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의견주실 이사님이 안계시므로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 혹시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이사 전원>

- 네. 없습니다.

<의 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남연구원장 선임(안)은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제안설명 - 부의안건 참조]

<의 장>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은 이사>

- 가장 많이 감액이 된 부분이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부분이죠?

<간 사>

- 네. 그렇습니다.

### <정세은 이사>

-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 어떻게 구분이, 왜 이게 이렇게 되었나요?

### <간 사>

- 이사님께서 허락하시면, 6차산업센터장이 여기 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숙 센터장>

-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센터장 김현숙입니다. 인사드립니다.
- 저희가 보조사업하고 법인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업 관련된 6차산업센터인데요. 저희가 금년에 도의 도비 전환사업 중에 일부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평가체계구축이라고 해서 거기서 4억 8천 정도가 유보가 되었고 저희가 판로지원이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들이 너무 경영체들의 수출지원 관련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그런 사업들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유보를 하는 관계로 거기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 <정세은 이사>

- 길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내년이 되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인지 그것만 잠깐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숙 센터장>

- 회복이 되면 경영체 지원, 판로지원 사업을 다시 저희가 추진을 할 예정

입니다.

<의 장>

- 국도비라는 게 국비하고 도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쪽이 많이 감액 됐습니까?

<김현숙 센터장>

- 도비 사업이 많이 감액 되었습니다.

<의 장>

-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현숙 센터장>

-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판로지원 쪽에 많은 사업이 있었는데요.  
5억 7천만원이었는데 저희가 해외 쪽으로 많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못하고 국내 쪽으로 1억8900만원의 사업만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의 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은 이사>

- 특별히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건들은 소소한 부분이어서 특별한 게 있다고 하면 원에서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저희가 이것만 봐서는 보자마자 의문거리를 알 수는 없고 하여튼 현재로써는 그 부분이 가장 특별하게 바뀐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문이

들었고 답변을 들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 <의 장>

- 본원의 추경이 아니고 부설연구센터들의 관한 것이죠? 그렇습니까?

#### <간 사>

- 일반회계는 본원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이 일부 부설센터에 관한 회계가 되겠습니다.

#### <박종찬 이사>

- 지금 특별히 언급하실 사항이 특별한 게 없으시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간 사>

-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과 실제로 일이 진행되면서 생기는 갭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 당초 예산을 많이 세웠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수입도 줄다 보니까 지출도 많이 줄여야 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은 사실은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로 수탁이 상당히 금액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 연구원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이 회계 안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12억이 감액이 됐는데 사실은 도·시군출연사업이라든가 사업수익이 들어와서 그 감액된 부분을 메꿔주는 형태로 보여지게 됐습니다. 이게 2억300만원만 감액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연구사업비, 저희가 시군출연금이라든가 사업수익으로 약 1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받게 되면 그만큼 연구사업비로 지출



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온전하게 저희가 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수입이 아니라 연구사업비로 5억 가까이 증액을 해야 됩니다.

- 예산 회계 상에는 아래쪽 지출이 특히 연구사업비가 적어도 5억 이상이 증액되고 그러면 나머지 인건비라든가 정책사업지원단,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사실은 감액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정 경비인 인건비를 5억 가까이 삭감한다든가 그럴 수가 없어서 회계 상으로만 지금 밸런스를 맞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 연말이 되면 이 문제를 조정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다른 계획들을 조정해야 합니다. 아직 연말이 되지 않고 연구가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부족할 것인지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는 맞춰놓은 회계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회계전문가가 아닙니다만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박종찬 이사>

- 그렇게 조정하는 게 회계규정상이나 도의 어떤 감사규정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 <간 사>

- 현재는 그렇습니다.
- 도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어서 사전에 이렇게 맞추고 최종은 연말 이사회 때 이 모든 것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의 장>

-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특별히 다른 의의가 있으신건 없으시죠?

<이사 전원>

- 네. 없습니다.

<의 장>

-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추경예산(안)은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고청취 건입니다. 부설센터 직원 불법행위 적발 경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는 제안 설명 바랍니다.

[간사 제안설명 - 부의안건 참조]

<의 장>

- 네. 감사합니다.
-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찬 이사>

- 이 분은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간 사>

- 네. 저희가 고발조치 하였고, 어제까지도 사건배정 담당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이미 고발조치하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 <박종찬 이사>

- 이런 범법행위가 밝혀지는 상황에서 처리는 형사 쪽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 견제 장치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인데 특히 회계 쪽 부분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작은 계모임에서도 통장은 회장이 갖고 도장은 총무가 갖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는 상호 견제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혼자 담당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 물론 예산 상 여러 명을 담당하게 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확충해나가야 직원들도 사실 보호가 될 것이기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게 연구원에서는 미래의 업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세은 이사>

- 어쨌든 맨 처음에 발견한 것은 6월경에 재무회계과에서 이것을 발견한 것 같은데 시스템이 아예 없었다라고 하긴 그렇고, 조금 더 엄밀한 부분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싶고 향후에 만들 때는 너무 많은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회계과정 자체가 복잡해져버리면 또 다른 부담이니까 적절하게 이 건은 잘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의 장>

- 또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 <이사 전원>

- 네.

## <의 장>

-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부설센터 직원 불법행위 적발 경과 보고 건에 대한 보고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부의 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는 종합토론 시간입니다. 충남연구원 운영전반이나 발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기 전에 오늘 새로운 원장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물론 도의회의 청문회 과정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잘 통과하셔서 새로운 원장으로 오셔서 좋은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수고해오신 윤황 원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소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 <이사 전원>

- (전원 박수)

## <의 장>

- 한 말씀 하시죠.

## <원 장>

- 네. 감사합니다.
- 지난 3년 동안 충남연구원과 함께해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마지막 제 임무를 마치고 대학으로 복직원을 제출해서 강의를 어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 이임하면서 몇 가지 이사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조력을 해주십사하는데 첫 번째 제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 하고 가는 게 있습니다.
- 앞서서도 2021년도 추경예산에 관한 내용들이 있었지만 이것과 관련된 것이기도 합니다. 저희 순수출연금이 45%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서울연구원이나 경기연구원 같은 다른 연구원은 75%이상 78%, 거의 80%에 육박하기 때문에 과제를 연구보고서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고 예산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또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연구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불안성이 어느 연구원보다 많습니다.
- 그렇다 보니까 완전히 도 또는 도의회에 종속화, 예속화 되어서 예산을 무기로 전략과제나 수탁과제나 용역을 가지고 흥정을 하는 이 문화가 지금 잠재되어서 우리 연구원의 발전역량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10%, 출연금 45%에서 내년에는 55% 내후년에는 65% 그 다음은 마지막 3년째는 75%를, 예산을 순수출연금을 높여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데 있어서 이사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두 번째는 조직 문제인데요. 아까 의사일정 3항 부설센터 직원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이죠. 옛날 같으면 다 덮어졌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작년 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태들이 비일비재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 감사위원회나 도 정책기획관실이나 여기에서 면죄부를 줬습니다. 거의 다 과실 같은 경우는 경고나 주의주면서 끝날 수 있는데 고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도 같은 경우에 면책을 주면서 주의, 경고를 주고 끝나버렸어요. 그게 25년 진단위 결과로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주의, 경고, 주의, 경고 반복해서 받아도 그냥 승진 다 합니다.

- 이런 것들이 계획을 저희들이 혁신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작년에 와서 중징계 있었지 않습니까. 정직, 강등, 감봉, 이런 것들이 작년에 있었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중징계가 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잘 해왔느냐? 투명했느냐? 아니었거든요.
- 그렇다면보니까 자기들에 대한 네트워크, 도와 도의회와 지역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연결되었던 것들이 저 하나로 의해서 스스로 분열을 하면서 작년에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저희 시스템을 작동한 게 그게 이번에 6월달부터 출현이 돼서 재무회계가 제가 작년에 보고 드렸다시피 회계법이 2015년에 복식부기를 하라고 했는데 여태껏 안했습니다. 이것 회계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이게 공공기관에서 있었어요.
- 작년에 이 문제 있던 것을 저희들이 바뀌서 올해 시스템화 했습니다. 세상에 엑셀로 작업 했었습니다. 1년 이전의 것을 가져와라 하는데 없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나 영원히 공공기록에 남아야 되는데 엑셀로 덮어써버린다고요. 1년 이전 것은 없애버리고 덮어써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크로스체크해서 다 들어가 보고 해서 이것을 시스템화를 시킨 결과가 이제 작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아낸 겁니다.
- 이런 측면에서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처음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조직적인 시스템에서 이사님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 그 다음 또 조직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연구원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충남연구원은 공주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도청이 있는 내포로 가야 됩니다.

- 간부들이 여기 계시지만 자기들이 대전이나 또는 세종에 산다고 해서 출퇴근이 힘들다고 해서 자기 이해관계적으로 공주에 붙잡고 있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포, 도청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 세상에 도청하고 한 시간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왔다갔다 두 시간인데, 출장비를 또 탑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공주시 눈치만 보고 공주시의회에서는 저희들한테 압박을 넣으면서 막무가내식으로 예산을 2억 삭감시키고 이거 안 됩니다.
- 제발 우리 이사님들 있잖습니까. 도청하고 같이 있으면 늘 정책에 대한 소통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원장이 여기 앉아있으면 언제 도청에 가서 지사님이나 언제 도의회하고 얘기해서 정책화해서, 그때그때 발생해야 되는데, 한 시간 가다보면 두 시간 언제 이게 될 겁니까. 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원들이 도청 옆에 있으면 공무원들이 부르니까 갑니다. 당연히 불러야죠. 늘 같이 가서 만들어야죠. 그게 연구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구원들이 그걸 연구원들도 숨겨놓고 안가는거예요. 공무원들이 부르면, 우리 도민이 부르면 당연히 가야하고 그런데 이게 공간적인 문제에서 안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도청으로 가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사님들 꼭 한번 해주시고요.
-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간적인 문제인데 지금 내포에 이전계획이 있는 센터들을 여기 있는 3개를 다 옮겼습니다. 내포에 센터가 있는데 이것을 집적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내포 안에서 흩어져있거든요. 이것을 어떤 공간을 확보해서 분원식으로 하나 해서 센터들만이라도 한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여기 있는 것도 서서히 본원이 거기로 가면서 가는 이런 중장기 플랜이 좀 작동 되는데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요.

- 세 번째는 관례로써 이사회에 대한 위상문제, 권한문제를 제고해야 합니다. 이창규 감사 또 안 왔어요. 제가 세 번째 이사회를 하고 있는데 정책기획관이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 또 기조실장이 신임 왔습니다. 보통 기조실장이 새로 오게 되면 우리 정책기획관실의 최고의 권한이 기조실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할이 거기에요. 정책기획관실에 우리가 소속입니다. 당연히 정책기획관 실장이 원래 와야 됩니다. 참석을 항상 해왔어요.
- 그런데 이제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마당에서부터 확 차단되면서 현 원장, 개혁 드라이브를 힘을 빼게 하기 위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온겁니다. 그러면 이사회를 그 쪽 행사를 옮기더라도 참석하도록 해야죠. 지금 신임으로 왔거든요? 그럼 기조실장 신임 인사를 와야 되는데 오질 않습니다. 인사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론 지금 세 번이나 노동자이사 논의가 있었는데 노동자 이사 두 번이나 우리가 지금 이사회 의결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9일이 첫 번째인데 약 두 달이 되도록, 두 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이사가 아직 임명을 안한거죠. 결격사유 조회?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십쇼. 감사 어디 갔어요? 빨리 들어오라고 해요. 그 전에 이미 내정자로서 두 명 다 이미 조회를 시작했어요. 끝났어요. 여태 뭐하다가 이럽니까? 그리고 자기들 업무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렇게 충남연구원장의 선임에 대해서 노동자이사가 와서 반발을 할까봐서 이런 꼼수를 부리면서 이사회 의견을 무시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 이사회 위상과 권한 제고에 관해서 정책기획관실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명을 하고 제가 다음 이사회에서 다음 신임 원장 선임될 때 확인해주시



길 바라고요.

- 마지막으로 신임원장이 어떤 과정을 거쳤던 신임원장님이 지사님 뜻에 의해서, 이사회 뜻에 의해서 취임됐기 때문에 신임원장님이 여기 와서 안착하면서 정상적으로 충남연구원에 박사가 될 수 있도록 이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 그렇지 않으면 이 분이 왔을 때 방해 부패세력들, 개혁을 반대했던 세력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또 잘못되는 길을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이 안착하고 갈 수 있도록 지금 5쪽에 보니까 새로운 신임원장에 대한 주요 학력, 경력을 보니까 지역 출생지 경상남도, 주요 학력을 보니까 박사 아니고 박사수료, 또 주요 경력을 보니까 공무원 출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반드시 내일부터 이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반대가 나올 수 있는, 언론보도 특보가 됩니다. 항상 그렇게 되어왔습니다. 행태가 그래요.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서 흠집내기하면서 분명히 지역출신이 충청이 아니다. 경상도다. 박사학위도 없는데 원장으로서 와서 박사들을 어떻게 다 대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관피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내일부터 도배가 될까봐서 저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 같이 검증을 해보시죠.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이 안에 분명히 그 쪽하고 내통되는 사람이 정보를 줄 겁니다. 그것을 못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여태까지 나쁜 사람들, 그 패거리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이미 그런 것은 이사회를 거치고 임원추천위원회 자격을 다 거치고 최종에서 인사청문회 거쳐서 오게 되면 그건 한 1년 반은 도와줘야 돼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측면에서 새로 오는 신임원장님에 대해서 많이

흠집을 내려고 하더라도 이사님들이 이것 좀 지키십시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제 소회를 마치겠습니다.

- 다음에 밖에 나가서도 학회활동이나 그 외의 활동에서 뵈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 <이사 전원>

- (전원 박수)

#### <의 장>

- 원장님이 맏히신 게 굉장히 많으셨군요. 미처 우리가 헤아리지 못 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거대담론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역사는 게 서서히 조금씩 진전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어쨌든 그동안 여러모로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업무를 수행해주신 윤황 원장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전원>

- (전원 박수)

#### <원 장>

- 이것 보세요, 감사님. 내가 이야기 시작하고 나가고 다 끝나니까 이제 들어오잖아요.

<조상현 팀장>

○ 죄송합니다. 화장실 다녀왔습니다.

<원 장>

○ 화장실 다녀온다고 했더라도, 항상 이게 이사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난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조상현 팀장>

○ 예. 알겠습니다.

<의 장>

○ 감사님들 대신해서 오셨군요. 조 팀장님이신가요.

<조상현 팀장>

○ 네.

<의 장>

○ 제가 윤황 원장님께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선문대학교로 오시게 되어서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축하할 일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 어떤 수레바퀴를 조금이라도 돌릴 수 있었다고 하는 점, 그런 점에 위안을 삼으시고 그 동안의 서운한 것, 힘들었던 것 다 녹이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제 연구원의 전반에 관해서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도 역시 이렇게 천안과 금산에서 오셨는데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느끼신 게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죠.

#### <손소희 팀장>

- 일단 그 동안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천안 오실 때 자주 뵈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만남 있을 것 같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만 드리고 말을 마치겠습니다.

#### <이재곤 팀장>

- 저희도 출자·출연기관을 담당하고 있는데 오늘 절차상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해봐야 된다는 고민을 해보게 되었고요.
- 윤항 원장님 고생 많으셨고 새로 취임하시는 원장님께서도 도정과 도지사님의 이념을 따라서 잘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 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해주십시오.
- 이렇게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원장님의 선임하는 것을 가결을 했고 했지만 여전히 남는 것은 아까도 논의를 했지만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사회에 소상한 정보가 제공되고 그래서 이사님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이사회에 임하시고 의결을 하실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사실 이렇게 해놓고 또 넘어가버리면 또 다시 반복되는 이런 일들이 아

마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정말 어떤 면에서는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이런 구호에 걸맞게 충남연구원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이사회가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김황배 이사>

- 의견보다는 윤항 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사회를 하면서 부의안건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충남연구원의 간부들의 보충질의라든지 궁금한 사항을 여쭙볼 수 있는 안건도 있고 원장선임이라든지 부정행위 적발이라든지 이사회 자체적으로 논의 할 상황에 대해서는 간부들을 퇴장시키고 우리끼리 안을 만들어서 의논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아주 민감한 상황을 다 내놓고 간부들까지 같이 협의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앞으로 이사회 때 그런 것을 염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 장>

- 제 개인적으로, 기획경영실장이십니까? 이런 이사회에 관련해서 원장선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조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죠?

#### <간 사>

- 네. 맞습니다.

#### <의 장>

- 그래서 그런 면에 조금 더 투명하고 확실하게, 사실 이사님들이 이번 과

정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르신채로 지금 이렇게 와서 어떤 분인지 사실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결의를 했던 말이에요. 이게 21세기에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그런 점에서 조금 더 합리적인 규정 그리고 공정한 절차 이런 면에서 관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갔던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해서, 물론 기관장으로서의 권한을 손상해서도 안 되지만 또 관행이라고 해서 지나친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그런 점에서 조금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잘 마련해서 가능하면 사실은 다음 이사회가 안건으로써 올려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 <원 장>

- 지금 보니까 간부들이 안건에 대해서 들어 오냐, 들어오지 않느냐 예컨대 후보자 주요 경력들을 들어와서 봤는데 이런 건 민감하고 나중에 통과가 안 되거나 했을 때 명예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 필히 제가 관여해서 스캔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만약 사전에 당사자가 아니면 들어와서 모든 과정을 유추해서 체크했을텐데, 그러다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체크하면서 챙기지 못했어요.
- 제가 만약에 당사자가 아니었으면 들어가서 이런 문제는 나갈 때 노출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인사청문회 끝나고 공식으로 났을 때 공개되어야 하는 문제이지, 지금 중요한 청문회 때 나오는 모든 자료를 도의원, 최고위원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만약 내정자가 도의회에, 아마 갔을건데요. 여기 왔으면. 그러한 것도 위법이죠. 이사회

결정 끝나서 올라갈 때 도의회에 통보되어야지 만약에 지금 통보됐다 그러면 위법이죠.

- 통보 안됐죠? 안되어야 하는데 벌써 알아가지고 도의원한테 다 네트워킹 있는데 가자마자 전화할겁니다. 이거 없어져야 합니다. 이런 문화가 없어져야 합니다.
- 그래서 이걸 회수하고 앞으로 이런 민감한 것은 우리가 몰랐다 하더라도 아까 김황배 이사님처럼 이런 민감한 문제 때문에 잠깐 이석했다가 끝나면 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의 장>

-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이사 전원>

- 네.

### □ 폐 회(이사장)

#### <의 장>

- 그러면 그동안 수고하신 윤황 원장님.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음 계획을 잘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까 윤황 원장님이 당부하셨던 새로운 원장님이 오시게 되면 적어도 1년 반이 아니라 3년 동안 열심히 도와드려야죠. 그런 열린 마음으로 연구원에 계신 여러분들도 조금 더 생각해주시고 우리 윤황 원장님이 그동안 추진하려고 하셨던 개혁적인 방안들 이런 것들도 새로운 원장님과 잘 상의해서 계속 추진되어서 연구원의 본래의 설립 목적 그대로 충남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일에 좋은 역할을 해주

시길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코로나로 참 어려운데 아마 금년 말이면 거의 끝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이 다시 되찾아지고 보다 더 우리의 소통과 공감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재단법인 충남연구원의 2021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감사합니다.



## □ 의 결 내 용

### 1. 충남연구원장 선임

#### ① 대상자

- 성 명 : 유동훈(劉東勳)
- 생년월일 : 1959.9.8(만61세)

#### ② 의 결

- 제10대 원장의 임기만료(2021.9.16.)에 따른 후임 원장을 선임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였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연구원 정관 제17조, 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
-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추천한 2인 중 충남도지사가 최종 지명한 유동훈 후보자를 제11대 충남연구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을 의결함

#### ④ 주요 경력

성명 (성별)	출생지 (생년월일)	주요 학력	주요 경력
유동훈 (남)	경상남도 (195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중경고등학교</li> <li>· 동아대학교 경영학 학사</li> <li>· University of Illinois 광고학 석사</li> <li>· 광운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 박사수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동아대학교 대외 부총장</li> <li>· 현.동아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석좌교수</li> <li>· 문화공보부/공보처 사무관</li> <li>· 국정홍보처 혁신기획관</li> <li>·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li> </ul>

## 2. 2021 제1회 추경예산

### ① 추경예산(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 종	기 정	추 경	사 유
합 계		12,089	12,292	△203	
일반 회계	수 입	12,089	12,292	△203	· 결산잉여금 △1,201 · 사업수익 212 · 출연수익 786
	지 출	12,089	12,292	△203	· 연구사업비 △10 · 경영관리비 △49 · 인건비 △133 · 정책사업지원단 83 · 예비비 △94

### ② 추경예산(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 종	기 정	추 경	사 유
합 계		12,750	12,784	△34	
특별 회계	수 입	12,750	12,784	△34	· 사업운영수익 188 · 순세계잉여금 172 · 보조금수입 △199 · 기타영업외수입 △200 · 기타수입 4
	지 출	12,750	12,784	△34	· 연구사업비 △223 · 예비비 113 · 인건비 76

### 3. 부설센터 직원 불법행위 적발 경과 보고

#### ① 대상

- 건 명 : 공금횡령, 형법 업무상 횡령죄
- 대상자 : 조OO 행정원 (2021.01.04. 입사, 무기계약직)
- 소 속 : 충남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 ② 사건 개요

- 조OO 행정원은 2021년 1월부터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회계 및 일반행정 업무를 담당
- 지난 6월경 본원 재무회계과는 해당 센터 회계장부 예금 잔액과 실제 거래은행 통장 잔액이 불일치함을 다수 확인
- 결국, 조OO 행정원이 본인 통장으로 급여를 중복 입금시킨 내역을 확인하는 등 내부조사를 통해 횡령사건임을 확정하게 됨(08.17.)
- 이에 조OO 행정원에게 이 사실을 시인받음(08.18.)
- 현재까지 밝혀진 횡령 금액은 약4,400만원으로 추정되며,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횡령 가능성도 있음
- 조OO 행정원은 모든 직무에서 배제되었으며, 홍성경찰서에 고소 조치함 (08.23.)

(충남연구원 직무관련 범죄고발 규칙 제5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횡령금액이 200만원 이상, 유용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 ③ 회계업무 프로세스 개선(안)

- 이번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공금횡령사건을 계기로 연구원 자체적으로 센터별 회계조사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계획안 수립
- 회계조사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계획
  - 자체 조사위원회 구성
    - 구성위원 : 총 6인 (연구원 소속 3인, 회계사, 변호사, 노무사 각 1인)
    - 조사기간 : 2021년 8월 ~ 조사 종결시
    -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를 시작으로 각 센터 및 본원 전수조사 확대
    - 조사범위 : 2021년 1월 ~ 9월 현재
  - (추가 조사 필요시 조사 범위 확대도 가능)
  - 회계장부 기장업무와 현금출납업무 담당자를 분리하여 업무의 이원화를 통해 회계와 자금의 투명성 확보
- 향후 재무회계 담당 직원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본원과 조사위원회, 그리고 센터 간 지속적인 회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

## □ 회의록 작성 날인

- 충남연구원 2021 제3차 임시이사회(2021. 9. 3)의 진행 및 의결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고, 정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서명이사, 감사가 각각 기명날인하여 이를 증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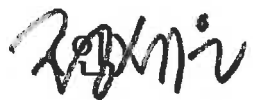
의 장 김 수 민 (인)



이 사 김 황 배 (인)



이 사 정 세 은



감 사 이 창 규 (인)

